

10월 9일(월) / 시116-118편

▶**내용요약:** 시편 116편은 고통 중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로써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는 시인의 결심을 볼 수 있다. 11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모든 나라들도 함께 찬송할 것을 권고한다. 118편은 자기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질문:**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116편)

▶**생각하기:** 116편을 노래한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찬양한다. 이어 2절에서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노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할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재이시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천한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10월 12일(목) / 시127-131편

▶**내용요약:** 127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내용을 다룬다. 128편은 이전 127편과 연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데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한다. 129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사시로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노래한다. 130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구원하심을 노래한다. 131편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할 영혼의 평온한 모습을 찬양한다.

▶**질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127편)

▶**생각하기:**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127:1)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지키셔야 우리의 것이 됨을 기억하자!!!**

10월 15일(주일) / 시141-145편

▶**내용요약:** 141편은 다윗이 지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하나님이 여러 위험들 속에서 의인을 보호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이 처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만다. 142편도 위기에 처 벗어나도록 간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장인 141편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원수의 몰락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시편들과 다르다. 143편은 시인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중

10월 10일(화) / 시119-121편

▶**내용요약:** 119편은 시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말씀이 인생을 비추는 등과 빛이 되어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 120편은 서로 속이며 싸우는 중에 화평을 간구한다. 121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호와 도우심을 노래하며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을 권면한다.

▶**질문:**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의 오른쪽에서 무엇이 되신다고 노래하는가?(121편)

▶**생각하기:** 119편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119:71)라고 노래한다. 고통을 당하는 시인은 고난과 하나님 말씀을 연관시키면서 고난에 유익이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시인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119:56)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13일(금) / 시132-135편

▶**내용요약:** 132편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번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과 이에 대한 성취를 노래한다. 133편은 이스라엘을 형제애를 가진 공동체로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134편은 성전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권면한다. 13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위엄하신 권능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권면한다.

▶**질문:** 형제의 동거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는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133편)

▶**생각하기:** 132편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132:1)라고 노래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달리 그의 집안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축복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이 아닌 **못나고 무능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

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144편은 다윗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한다.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노래한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 )이 하나도 없나이다.”(143편)

10월 11일(수) / 시122-126편

▶**내용요약:** 122편은 여호와와 그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쁨과 그 도시의 안위를 노래한다. 123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한 열쇠와 조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12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구원하심을 노래한다. 125편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선대와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126편은 포로생활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양한다.

▶**질문:** 여호와와 그의 집이 있고 잘 짜여진 성읍으로 건설되었으며 이 곳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도시는 어디인가?(122편)

▶**생각하기:**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땅에 돌아오자 126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126:3)라고 노래한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10월 14일(토) / 시136-140편

▶**내용요약:** 136편은 역사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생활의 수모와 아픔을 애통해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애원한다. 138편은 다윗과 열왕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기록하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39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분의 인도하심을 노래한다. 140편은 의인의 편이신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질문:** 악인들은 악을 피하고자 매일 모이면서 그 입술 아래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가?(140편)

▶**생각하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16절)라고 한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때 그 분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요 근원 이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생각하기:** 시편 143편 저자인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12절)라고 고백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면에는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